

##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정치 및 사회 (2020년 4월 27일 기준)

COVID-19 관련하여, 총 4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비영리 목적으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작성되었고, 무단 배포 및 무단 전제 **안금지**되고, 출처 표기 **안금지**되며, 모두 허용됩니다. 저가 있는 자리에서 멕시코 한인 사회를 위하여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별도 연락을 통하여 게재, 복사 관련 허락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현 서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I. COVID-19 현황 (4월 26일 오후 7시 기준)

- 사망자: 1,351명
- 확진자: 14,677명 (여성 1명 증가)
  - 남성: 57.79%, 여성: 42.21%
  - 입원: 38.84%, 자택 격리: 61.16%
  - 확진자 인원별 상위 12개 주
    - ✓ 멕시코 시티: 3,966명
    - ✓ 멕시코주: 2,355명
    - ✓ 바하 캘리포니아: 1,271명
    - ✓ 시날로아: 747명
    - ✓ 타바스코: 728명
    - ✓ 키타나 루: 604명
    - ✓ 푸에블라: 511명
    - ✓ 베라쿠르스: 354명
    - ✓ 코아후일라: 348명
    - ✓ 유카탄: 323명
    - ✓ 할리스코: 282명

- ✓ 누에보 레온: 276명
- 14,676명 (24시간전 대비: 22명 남성 (H), 14명 여성 (M) 증가) 25일 오후 7:00 기준
- 14,640 명 (122 명 (H), 113 명 (M) 24 일 오후 7:00 기준
- 의심 환자: 7,612명
- 음성 환자: 45,346명



참고, 상기 정보는 직접 멕시코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oronavirus.gob.mx/datos/>

멕시코 시티등 대부분 지역은 집에 있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하여도, 행정 처분 혹은 경찰서 유치장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대부분 의무 착용). 그러나, 일부 지역은 길거리 행인을 경찰서 유치장에 몇 시간에서 하루 이틀 정도 구금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계하여, 26 일 일요일 보건부 차장 Lopez Gatell 은 인권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당장 시행 중지 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부 의뢰인들이 제 2 단계와 제 3 단계 현 재난 상황이 어떻게 틀리냐? 제 3 단계라고 하여도, 직원 임금은 양측 합의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법적 용어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24 일 노동부는 노동법 427 조 VII 항 비상 **재난** 상황 (DCS, Declaratoria de Contingencia Sanitaria)이 아니라, 비상 **재통** 상황 (DES, Declaratoria de Emergencia Sanitaria)으로 틀리기때문에 직원 임금 보장등 노동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참, 나...이것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DCS 관련 링크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4172>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제 2 단계: “조심해라..코로나 바이러스”

제 3 단계: “많이 조심해라...그리고, 집에 좀 붙어있어라. 싸돌아 다니지 말고!”

## II. 대통령 AMLO (Andres Manuel Lopez Obrador) 언론 발표

### - COVID-19 연관 필수 업종 이외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감사 강화 (27일)

대통령과 함께한 오늘 월요일 27일 오전, 노동부 장관은 Coppel, Andrea, Bolim, Carnival 사업체를 예로 들며, 13% 정도 되는 사업체가 아직도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노동부 감사와 병행하여, 보건부 및 경찰과 합동으로 방문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3% 사업장은 주요하게 자동차 관련 업종 28%, 원단 산업 17%, COVID-19 비연관 상업 15%로 제시하였습니다.

**- 가솔린 자급 자족 및 석유 수출 자제 표명 (24일 금요일)**

정부 정유 능력 부족으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유류 수입이 많은 단점을 극복하고자 AMLO 대통령 입후보 2018 년 공약으로 제시한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멕시코 포함 전 세계 경제 활동 비활성화 및 주요 산유국 경쟁으로 석유 포함 대부분 탄화수소 공급이 수요 대비 넘치는 상황을 맞이하여, 미약한 경제 활성화 정부 방안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고자 발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MLO 입후보 공약, 정치 이력 및 성향 파악을 위하여 다음 링크: <http://ygconsulting.net/NewsKo/2728>).

국영 석유 회사 PEMEX 는 중간 간부급 이상 직원들에게 2020 년 12 월까지 월급 중 25%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서류 양식을 이메일을 통해 보냈고, 직원들은 4 월 28 일까지 서명해서 보낼 수 있다고 친절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중간 간부급 이상 PEMEX 직원들은 노무 계약서 연장 계약, 무언의 압력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 반강제적으로 서명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 포함 많은 업체들이 AMLO 대통령 고향 타바스코 (Tabasco), **Dos Bocas** 지역 진행 정유 공장 입찰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총 예산 MX\$ 307,580 백만 페소 책정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은 22 일 대통령 연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상황으로 연기되지 않는 사업 중 하나로, 멕시코 남부 팔렌케 (Palenque) 지역 마야 열차 신설과 함께 발표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23 일 신용 평가 회사 Moody's 측에서 멕시코 소재 시중 대부분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하락 조정하고 (<http://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4280>), 다른 국제 신용 평가 회사들도 멕시코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4 월 24 일 멕시코 중앙 은행은 주요하게 환율 변동 차이에 따른 이익으로 2020 년 일사분기 (1 월 ~ 3 월) 이익 MX\$ 835,465 백만 페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책없이 지폐를 찍어내는 것과 특별한 기준 없이 모든 사업체 혹은 멕시코 국민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플리즘이라고 하지요..조금 유식하게). 그래서, 합리적 기준 토대, 정부 보조금 지급 및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에 대한 실질 경제적 효과 마련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 부분에 국한한다고 하였을 때, 우선 순위를 정하고, 연기 가능한 것은 뒤로 잠시 보류하고 (대부분 임기 기간 중 끝을 보려고 하는 경향), 민간 기업들, 전문가들 및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 대책을 논의 및 진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 불만은 멕시코 민간 및 일부 지방 정부측에서도 아래와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멕시코 고용주 협회는 직원 임금 관련 고통 분담을 함께하자고 제안한 상태에서 특별한 답변이 현재 (27일)까지 없는 가운데, 동월 24일 누에보 레온, 타마울리파스, 코아후일라, 두랑고, 미초아칸 주지사들 및 2,000여개 민간 사업체들이 참여한 화상 회의를 통하여 연방 중앙 정부에 Dos Bocas 정유 공장 신설 및 마야 열차 계획을 임시적으로 보류하고, 해당 예산을 실질적 경제 활성화 (부가가치세 환급 신속등 포함)에 투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관계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27일 월요일 AMLO는 “정부가 국가 재정을 축내며, 일반 민간 사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 변화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25일 토요일에도 와이셔츠를 풀어헤치고, 서재로 보이는 곳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서 “COVID-19 상황 터널 끝이 보인다...모두 잘 해보자”하고 큰 응원을 해주셨네요... (AMLO 행정부에 대한 27일 Consulta Mitofsky de Roy Campos 진행 여론 조사에 의하면, 긍정 평가 48.5%, 부정 평가 51.4%).

대통령 AMLO 추진력 (?)은 몇 년 전 겨울, 서울 광장 시장 식당 벽면 한편에 낙서되어있는 글귀를 떠오르게 합니다 “날씨가,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먹지”

**III. 연방 정부**

**- 사회 보험청 (IMSS)에 의한 신용 대출**

신용 대출 신청 방법은 24 일 서류에 표시 되어 있습니다 (<http://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4283>). 조금 더 보강한다면, 총 MX\$ 25,000 (USD\$ 1,200) 폐소 지급되는 COVID-19 기간 중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의리 있는 고용주라 명칭되는 영세 사업장 대상 신용 대출은 24 일 기준, 총 214,115 신용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8 월 부터 분할 납부 시작, 최대 3 년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신용 대출 중 가족 중심 상업 분야 131,683 개, 제조 업체 36,681 개, 서비스 분야 45,751 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허가된 금액은 5 월 4 일부터 Banco Azteca, Santander, Banorte 를 통하여 입금된다고 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총 645,102 개가 있다고...;

직원 수	연 이자율	신용 대출 발표 개수
1 명 ~ 5 명	6%	505,660
5 명 ~ 10 명	7%	74,708
10 명 ~ 50 명	8%	55,130
50 명 초과	10%	9,604

● 5명 직원은 이자율이 그림...6.5% ????

**- 소비자 보호원 (Profeco) 조사**

4 월 23 일 소비자 보호원은 동월 1 일부터 17 일까지 달걀, 토르티야, 설탕, 콩, 식물유등과 같은 중요 소비재를 COVID-19 기간 중, 불합리하게 전격 인상하였다고 소비자 신고된 274 개 대형 슈퍼 마켓에 대한 감사 진행하였습니다.

총 274 개 신고 업체들은 전체 대비 Walmart 23.7%, Bodega Aurera 23.3%, Soriana 14.9% 차지 하였습니다.

**- 기타**

✓ 기존 제도 혁명당 (PRI) 소속으로 베라크루수 전임 주지사 Javier Duarte 소유로서,

국고 귀속된 농장 (“El Faunito”)을 COVID-19 관련 임시 병동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24일 발표

PRI 에서 제명된 해당 주지사는 부패 혐의로 2016 년 후반 부패 혐의로 국외 도중 중 2017 년 과테말라에서 체포되어, 멕시코로 추방되었고, 현재, 구속 수감 상태에 있다.

#### IV. 멕시코 일부 지역 (사회, 경제)

##### - 멕시코 시티

- ✓ 25일 멕시코 시티 시장 Claudia Sheinbaum은 일반 버스 및 마이크로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에 유류 (가솔린, 디젤등) 관련 정부 보조금을 지불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일반 버스 경우, 매일 MX\$ 6,000, 마이크로버스 경우, MX\$ 4,000을 5개월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COVID-19 기간 중 승객 저하 (50% ~ 90%)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응답한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자동차 관련 대출 업체 Volvo, Mercader, Autofin, Su Auto, Mifel, Afirme, Santander, Daimler 는 대출 관련 상황을 3 개월에서 4 개월까지 연기하겠다고, 멕시코 시티와 합의하였습니다.

- ✓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
- ✓ 홍역 (Sarampion): 온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전염병 종류중 하나인 홍역은 보건부는 4월 24일까지 총 154건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 127건 (82%), 멕시코 주 25건, 캄페체 2건 입니다 (31명 백신 접종 이력 존재). COVID-19와 구별되는 점은 백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시티 구청별로 보았을 때, Gustavo A. Madero: 67건, Miguel Hidalgo 17건, Iztapalapa: 10건, Cuajimalpa: 8건, Alvaro Obregon: 7건등이 주요합니다.

첫 환자는 2월 28일 신고된 멕시코 시티, Alvaro Obregon 지역 소재 8살 여자 아이로서, 2월 22일 북부 형무소 수감자 2명 (37세, 39세)을 면회 후,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작성: 김영곤

- YG consulting 대표, 변호사, 공인 회계사
- 멕시코 연방 사법부 (대법원 포함) 인증 회계 전문 감사사
- 멕시코 연방 사법부 (대법원 포함) 공식 한국어 (한서, 서한) 통번역사